

##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 1. 기본정보

이름	이유*	학번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필리핀대학마닐라(UPM)	기간	2016. 6. 25(토) ~ 7. 23(토)

###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UPM은 마닐라에 위치해 있지만 어학원은 수빅에 위치한 TIMES-SLC 였습니다. 어학원은 에어컨 시설이 잘 되어있어 시원하게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산 쪽에 위치해있어 벌레가 조금 있지만 공기가 맑고 쾌적하였습니다. 빨래와 청소는 일주일에 3번정도 해주셔서 편리하고 제공되는 식사도 한식이라 입맛에 잘 맞았습니다.
수업	<p>수업은 매일 1교시~8교시까지 한 교시당 50분 수업, 10분 휴식으로 진행됩니다. 하루에 듣는 8개의 수업 중 5개는 1:5 그룹수업이고, 3개는 1:1 수업이었습니다. 그룹수업은 처음에 본 레벨테스트로 5명씩 나누어 집니다. 수업 과목은 CNN리스닝, 이슈, 멀티미디어, 1:1리딩, 1:1스피킹, 1:1회화, 영문이력서쓰기, 문법으로 나누어 집니다.</p> <p>선생님들은 필리핀 선생님 이시지만 미국이나 영국, 호주에서 자라셨거나 그 곳에서 근무를 하셨거나, 영어영문학과를 전공하신 분들이셔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발음 등 문제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문장으로 완벽히 말을 못하더라도 단어를 몇 개 말하면 금방 알아들으시고 완벽한 문장으로 다시 한번 말해 주셔서 문장을 만들어 말하는 방법을 항상 익힐 수 있습니다. 단어의 뜻을 모르거나 이상하게 발음해도 올바른 발음을 말해주시고 영어로 말할 수 있게끔 기다려주시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셔서 분위기는 좋습니다.</p> <p>과제는 그룹 반마다, 개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과제가 없는 날도 있었고 많은 날은 4-5개정도 였습니다. 과제는 전부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의 양이었고, 방과후 남은 여가시간을 이용해 충분히 할 수 있을 양이었습니다. 수업마다 다르지만 자신의 생각을 적어오는 것 같은 수업에서는 공책이 특히 필요하기 때문에 공책을 준비해가야 합니다.</p>

Activity	<p>방과후와 주말에는 거의 나가서 액티비티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p> <p>필리핀 도착 후 다음 날에는 선생님들과 조를 짜서 수빅 시내를 구경하였습니다. 환전을 하고 유심을 사고 지프니, FB등 교통수단을 이용해 보았습니다.</p> <p>수빅시내에는 하버포인트와 sm몰 이라는 백화점같은 쇼핑센터가 있습니다. 두 곳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쇼핑을 할 수 있습니다.</p> <p>학생들끼리 계획해서 간 액티비티로는 요트체험, 카마얀비치 등이 있었는데 요트는 타고 바다 한가운데로 간 후 정지하고 그 곳에서 수영을 하고 스노쿨링을 할 수 있습니다. 따로 돈을 건어 바비큐파티도 바다 한가운데서 하였습니다. 카마얀비치는 입장료 500페소를 내고 들어가야 하는데 어학원에서 주신 국제학생증으로 50퍼센트 할인된 가격으로 입장권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 곳 식당은 비싸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어학원에서 점심을 먹고 출발하여 들어와서 저녁을 먹었습니다.</p> <p>선생님들과 함께한 액티비티로 고아원 방문이 있었습니다. 선생님들과 아트, 뮤직, 게임 3팀으로 나누어서 고아원에 가서 할 것들을 미리 상의하고 방문하였습니다. 아이들과 준비한 활동을 하고 간식을 먹고 아이들이 준비한 노래를 듣는 등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p> <p>일정 중 UPM에 방문하는 일정이 있었습니다.</p> <p>수빅에서 마닐라는 차로 약 3-4시간정도 걸립니다. 필리핀은 교통혼잡이 심해 빨리가면 2시간 30분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p> <p>그 곳에서 아침을 먹고, 대학 학생들과 조를 나눠서 간단한 이야기를 나눈 후 점심을 먹었습니다. 점심식사 이후에는 대학 교수님이 오셔서 필리핀의 문화에 대해 강의를 해주십니다. 수업은 학생 참여형 수업이다보니 지루하지 않고 시간이 금방가서 좋았습니다.</p> <p>다른 액티비티로는 방과후와 주말에 친구들과끼리 시내로 나가 밥을 먹거나 마사지를 받는 등 하고싶은 것을 찾아 했습니다.</p>
----------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제가 간 시기는 필리핀 우기에 해당하는 달 이었습니다. 하늘이 맑다가도 갑자기 비가 쏟아져내려 나갈 때는 우산을 항상 챙겨서 나갔습니다. 그러나 짧게는 20분 정도 소나기가 쏟아지고 다시 맑아지는 등 비가 많이 오지만 금방 그쳐서 일정에 큰 착오는 없었습니다.
안전	소매치기, 강도 등 위험한 상황에 대한 주의를 많이 들은 터라 각별히 조심했지만 수빅은 안전하였습니다. 백화점 같은 큰 건물 안으로 들어갈 때에는 소지품검사를 하여 총기 같은 위험한 물건은 소지할 수 없습니다. 덕분에 생활하는 한 달 동안 좋지 않은 일은 한번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숙소	<p>학교기숙사( ○ ) 홈스테이 ( ) 외부 숙소( ) 기타( )</p> <p>숙소는 3인1실로 배정됩니다. 에어컨은 방마다 하나씩 있어 생활하는데          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통금이 있는데 일~목요일은 22시, 금~토요일은          새벽2시로 제한됩니다. 크게 지키기 어려운 통금시간은 아니었기 때문에          통금에 관한 사항은 만족스러웠습니다.</p>
식사	<p>학교식당( ○ ) 홈스테이 ( ) 외부식당 ( ○ )기타( )</p> <p>평일에는 거의 어학원 식당을 이용하였습니다. 식단은 한식위주로 나와          음식에 대해서는 거리낌없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          지만 제 생각에는 김치와 된장이 특히 맛있어서 잘 먹었습니다.          주말이나 평일 저녁에는 외부 식당에서 먹은 날이 많았습니다.          근처에 있는 한인식당도 괜찮았고 현지 음식점도 강한 향신료향만 빼면          맛있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p>
교통	<p>어학원에 기숙사와 강의실이 한 건물에 있어 따로 통학은 하지 않았습니          다. 시내로 나갈 때 FB라는 교통수단을 주로 이용했는데 학원 앞에서 기          다리면 지나가는 FB를 타고 시내로 가면 됩니다. 한번 타는데 13페소로          한국돈으로는 약 340원정도입니다. 돌아올 때는 주로 택시를 탔는데 5명          까지는 120페소, 인원 1명 추가 할 때마다 30페소씩 추가비용이 붙습니          다. 수박은 교통상황이 깔끔하고 널널하여 차가 막힌다던가 하는 문제점          은 없었습니다.</p>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여행자보험,유학허가 증,교재비,전기세,시설관리비, 공항세	766,000	출국 전 사전 납부
기념품	120000원	
생활비	약 300000원	외식, 교통비, 쇼핑 등 포함
액티비티(요트, 카마얀비치)	약 52000원	
합계	1238000원	

## 5. 출국 전 준비사항

동전지갑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반 지갑보다는 지퍼하나 달린 동전지갑이 더 실용적일 것 같습니다. 출국하기 전에 현금으로는 100달러 정도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체크카드에 넣어 필요할 때마다 인출해서 사용하라는 설명을 듣고 150달러 정도만 현금으로 가져가고 나머지는 체크카드에 넣어갔는데 현지에서 가보니 한번 인출할 때 수수료가 꽤 부담되는 부분이었습니다. 현금으로 잔뜩 가져가도 나갈 때 필요한 돈만 가지고 나가면 돈을 잃어버리거나 하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현금으로 가지고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출국 전에 간단한 선물을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무것도 챙기지 않았는데 4주동안 정든 선생님들께 선물을 드리고 싶어 먹으려고 가져왔던 컵라면을 먹지 않고 선물로 드렸는데 이 부분은 미리 준비해 가시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몇몇 선생님들께서는 먼저 선물을 챙겨주셔서 미안한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선물은 한국에서 준비해가시길 바랍니다.

## 6. 본인 소감 및 평가

제가 이번 필리핀 단기 어학연수를 가게 된 계기로는 SRC센터에서 멘토들을 대상으로 어학연수 추천을 해 주신다고 하여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운이 좋게 선발되어 가게 되었습니다. 영어실력을 향상시키기에 한 달은 너무 짧은 기간이지만 여러 경험을 해보고 싶어 간 필리핀에서 저는 뜻 깊고, 색다른 경험을 너무 많이 하고 돌아왔습니다.

영어 실력 또한 놀랄 만큼 향상되었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듣는 귀가 열렸고 외국인과 한글이 아닌 영어로 대화하는 점이 무섭기만 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대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금요일 까지 5일동안은 고등학교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하루 8시간 수업을 들었고 방과후에는 그 날의 숙제를 하고 자유시간을 가졌습니다.

시내에 나가는 것부터 나가서도 한국사람들이 아닌 현지인들과 소수의 외국인들을 만나며 영어로 말하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수업시간 역시 처음에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저를 많은 선생님들께서는 기다려 주셨고, 하는 말에 공감을 해주시고 호응을 해주셨습니다.

같이 떠났던 학생들 또한 처음에는 서먹서먹했지만 팀장을 필두로 같이 액티비티를 하고 밥을 같이 먹으며 금방 친해져서 돌아올 때는 많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4주동안 필리핀에 머물면서 느낀점으로는 필리핀 사람들은 친절하고, 밝다는 것입니다. 길을 물어보거나 하면 모두들 너무 친절하게 답을 해주어서 저까지 기분이 좋아진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어학원의 선생님들도 계단을 오르내릴 때 마다 모두들 먼저 밝게 웃으시며 인사를 해주셨는데 이런 경험으로 한국에 와서도 모든 것에 감사하고, 밝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1주일 동안은 적응하느라 시간이 굉장히 느리게 간다고 생각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시간이 너무 빨리가서 마지막 4주차 때는 몇 주 더 머무르고 싶을 정도로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한 달동안 알차게 수많은 경험을 해보고 왔고 제 인생의 잊지 못할 추억을 많이 남기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에서 어학연수를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저말고 꼭 다녀오라고 말해줄 만큼 이번 한 달을 너무 뜻깊게 보내고 왔습니다.

##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요트 안에서 찍은 여자 단체샷 입니다.



카마얀 비치에서 찍은 단체 샷입니다.



멀티미디어수업 시간에 만든 뮤직비디오와  
광고로 1등을 하게 된 저희 그룹  
사진입니다.



마닐라에 있는 fort santiago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저녁 먹으러 가기 전  
찍은 사진입니다.



고아원 봉사가 끝나고 찍은 사진입니다.